



설립연도 : 1997년
업종 : 법률서비스업
전체 직원수 : 467명
전체 장애인직원수 : 8명
 (장애인고용률 3.43%,
 2013년 12월 기준)

2014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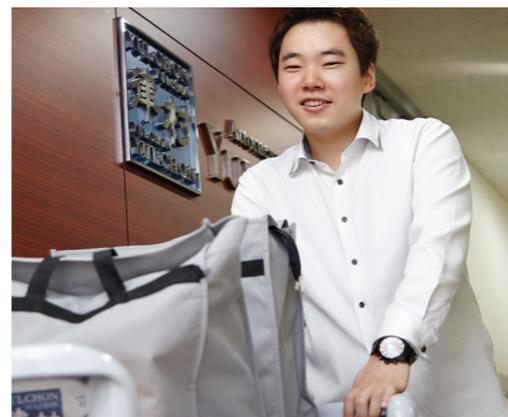


장애인가용의 뜻을 모아 법률가 마을을 만드는 법무법인(유) 율촌

철학이 있는 법률가 마을

‘뜻을 모으고 실력을 합쳐 법률가의 마을을 세우다’라는 이름을 가진 로펌이 있다. 공정거래, M&A, 금융, 조세, 국제거래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명성을 갖춘 파트너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법률가의 마을, 법무법인(유) 율촌(이하 율촌)이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율촌은 사람의 성장 가능성을 먼저 살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한다. 그래서 소속 전문가들의 교육을 위한 투자가 가장 많고 시스템이 잘 정비된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율촌은 로펌 규모를 늘리기 위한 합병 없이도 국내 최고의 로펌이 되었다. 특히, 로펌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설립 후 단기간 내 대형 로펌으로 자리 잡았고, 베트남·중국·미얀마 등에 사무소를 개소, 글로벌 로펌으로도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 바탕에는 ‘좋은 인재가 좋은 회사를 만들고 진심 어린 소통이 그 출발이다.’라는 우창록 대표변호사의 경영 철학이 숨어 있다.



고정관념을 탈피한 법무법인

창의력이 강조되는 요즘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다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앞으로의 세상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는 율촌은 '장애인은 법무법인에서 일하기 힘들다'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장애인고용을 통해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며 소통하는 마을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장애인고용을 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마인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의 고용컨설팅인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고용의 틀을 쌓아 올렸다. 율촌은 2010년 공단과 직무 분석을 시작, 두 달에 걸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한 후 공단의 모집대행서비스를 활용해 중증장애인 채용에 나섰다.

장애인고용 하고자 새로운 직무 개발

도심 내 빌딩에 자리한 율촌은 전체 건물 중 7개 층을 사용하고 있다. 로펌이라는 특성상 고객을 접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곳이 많고 장시간 앉아 법률 서적 및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업무 특성을 파악한 후 회의실 청소, 헬스키퍼 등의 틈새 직무를 개발, 3명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했다. 그렇게 처음 고용한 장애인직원의 성실한 모습에 긍정적인 반응이 높아진 율촌은 추가 고용으로 다양한 직무에서 장애인을 마을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2011년 이후 매년 2명씩 추가 고용하며 장애인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선 율촌은 장애인고용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고용률 3.43%를 보이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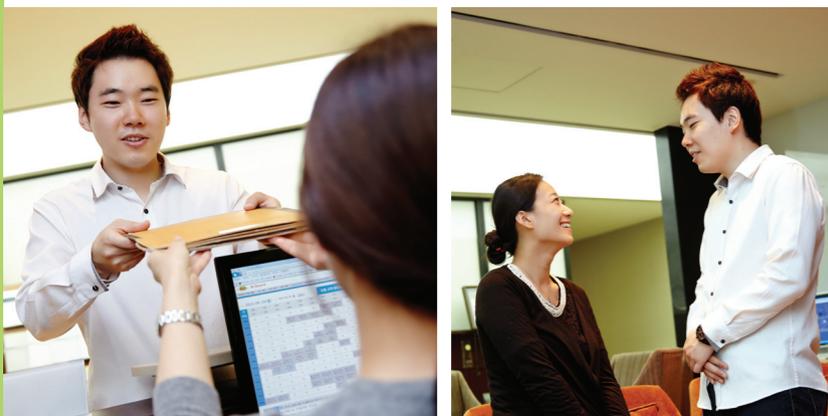
복사업무, 우편분류 업무, 사내 메신저 업무 등 중증장애인 적합 업무를 추가 개발하여 현재 8명의 장애인직원이 율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정신장애, 지체장애, 뇌병변, 지적장애 등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 배치를 통해 즐거운 회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사내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림 필요

율촌은 채용뿐 아니라 적응도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기에 장애인고용 후 이들이 조직 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수시 면담을 통해 장애인직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가 하면 업무 능력을 살펴보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보직 변경을 제시하기도 한다. 장애인직원과 가장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총무팀 라종민 대리는 “비장애인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듯이 장애인직원도 똑같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며, 동료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직원이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 동안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은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마음을 열어줘야 합니다.”라고 장애인직원에 대한 인사팀의 노력에 대해 말한다.

지식기획팀 이미라 대리는 “장애인고용 초기 무작정 장애인에게 많은 것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장애인직원과 함께 일하다 보니 주기보다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볼 때면 비장애인인





저희를 먼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울촌’이라는 한 마을에서 사람이 지닌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답니다.”라며 장애인고용을 통해 비장애인직원의 깨달음도 늘어난다고 한다.

더 많은 사람과 더 큰 행복 나눔

울촌은 장애인직원을 통해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생겼고, 웃음이 하나들 늘어났다. 사내 메신저 업무를 하는 장애인직원의 경우 로펌 전 층을 다니며 많은 직원과 만나 인사하고 답소를 나누며 밝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로펌 내에서도 인사팀, 총무팀을 중심으로 장애 유형별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장애인·비장애인 사이 보이지 않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있다.

장애인직원의 밝고 열의 찬 모습을 보며 울촌의 전 임직원은 자부심을 느끼고 장애인직원의 끊임없는 발전을 통해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사무 보조를 하는 장애인직원을 대상으로 문서작성 교육을 실시해 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성취의 기쁨을 느끼게 한다. 이뿐 아니라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혜택 제공으로 근속률을 높이고 있으며 장애인직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병원을 내원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장애인을 위한 무료법률 서비스 시작

울촌은 장애인고용 외에도 체계적인 사회공익활동을 전개하고자 2013년 공익사단법인 ‘온울’을 설립했다. 장애인고용에 그치지 않고 기부와 봉사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따뜻한 법률가의 손길로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자 장애인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으로 사회 취약 계층이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쓴다.

장애인고용을 비롯해 공익사업에도 적극 동참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실천하는 울촌은 ‘2012 동아일보 행복더함 사회공헌대상’, ‘2014 매일경제신문 글로벌 나눔경영대상’을 수상하며 자칫 냉정하고 차가워 보일 수 있는 법조계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법률서비스 업종에서도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며 로펌 최초로 2014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되었다.

지식과 마음을 쌓아 울창한 숲이 되다

인사팀 임경아 차장은 “직무 개발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고용을 위해 적합한 업무를 개발해 일자리를 나눠 갈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 지식을 가진 인재라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채용할 계획입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부분을 준비했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라며 기존 직무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해 법률서비스업에서 함께 일할 수 있음을 실천한 울촌, 전 임직원의 신뢰와 화합은 법률가 마을의 가치를 드높인다.



우창록
(법무법인(유) 율촌 대표변호사)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장애인고용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 이상의 의미로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고용은 효율성으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고용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율촌은 앞으로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고객의 자부심이 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며 편견의 벽을 허물고 그보다 높은 세상, 높은 가치로 세상을 밝히겠습니다.



남도경
(뇌병변 2급, 법무법인(유) 율촌
총무팀, 메일룸)

세상과 소통하는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율촌에서 근무하면서 비장애인직원과 하나 되어 삶을 나눈다는 것이 제게 주는 행복은 뭐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일을 통해 또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이 장애인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됩니다. 더 많은 장애인이 희망찬 내일을 그릴 수 있게 날개를 달아 주시길 바랍니다.